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 호 정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나 사회적 집단을 통해 급격히 증가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그들의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자원을 얻게 되어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이 시기에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하다(황현정, 2006; Noller & Callen, 1990).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상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질병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환자는 외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신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취약하여 지속적이고 지지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며 이때 의료진과 형성되는 치료적 관계는 환자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여 이전의 건강한 자기 모습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치료적 관계는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간호대학생이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환자를 간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도복늬 등, 2009; Julia & Balzer, 1996).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외모를 통해 인간의 우월성을 가리거나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이정순, 한경희, 2008). 현대인들은 다양한 매체에서 파생되는 무분별한 정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상화

된 외모에 길들여져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황윤정, 2007). 외모를 중요시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외모가 아름다운 개인의 다른 특질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인지각의 후광효과로 작용하기도 한다(홍금희, 2006; Brewis, Hruschka, & Wutich, 2011). 그러나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할 간호대상자가 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취약한 환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간호대학생과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개인이 지각하는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을 인식하는 가치관이나 신념과도 관련이 깊다(이정순, 한경희, 2008).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신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다(송경자, 이경숙, 2009; 정길수, 이성은, 2002).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표현 수단으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도복늬 등, 2009; 이현주, 2008; Stuart & Sundeen, 1983). 이때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이상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송경자, 이경숙, 2009; 정길수, 이성은, 2002).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이 중요하며, 이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도복늬 등, 2009; 황성자, 2006).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이 지각하는 신체이미지, 외모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어 : 태도, 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1) 대원대학교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rellakim@hanmail.net)

투고일: 2011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12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9일

최근 잘생긴 외모와 아름다운 신체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한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가 외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홍금희, 2006; 황윤정, 2007; Brewis et al., 2011). 특히 청소년 시기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더 인지하여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송경자, 이경숙, 2009; Myers & Crowther, 2009)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외모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질병상태의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김현미, 2002; 김희숙, 박완주, 하태희, 2006)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외모나 신체이미지와 관련하여 대인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또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Stuart & Sundeen, 198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변수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간호대학생이 환자와의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간의 정도를 알아보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A, J, D시에 소재한 3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취지와 응답을 원치 않은 경우는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후 연구 참여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까지였으며 총 7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75부 수거되었고 설문내용에 불충분하게 답한 총 22부를 제외한 총 753부를 연구결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설정하고 G 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권고한 표본수인 470명보다 많아 충족되었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연구 도구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Heinberg, Thompson과 Stormer (1995)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를 수정 보완한 황윤정(200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는 내면화 요인 6문항과 인식 요인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내면화(internalization)는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는 것이며, 인식(awareness)은 외모의 사회적 기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순, 한경희, 2008). 황윤정(2007)의 연구에서 내면화 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 인식 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내면화 요인과 인식 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각 .87, .77이었다.

●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개인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시각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수평선을 10개의 등간척도로 표기한 후 제일 오른쪽에 10 (외모에 매우 만족함), 제일 왼쪽에 0 (외모에 전혀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적고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외모만족도 정도를 선상의 숫자에 'V' 표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이현주(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신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복늬 외, 2009)를 말하며,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부정문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현주(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 (1965)의 자존감 측정도구를 번역한 전병제(197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Rogenberg, 1965)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항상 그렇다)로 측정되며, 부정문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병제(197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는 최미라(200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나와 타인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만족감 4문항, 타인에 대한 거리감을 측정하는 친근감 3문항,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이해도 3문항, 타인과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측정하는 의사소통 3문항,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개방성 5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미라(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정도

는 t-test와 ANOVA로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기분석(Hierachial 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를 A, J, D시를 중심으로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확대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여학생이 85.1%(641명)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19세 이하가 43.3%(326명)이며, 20세 이상은 56.7%(427명)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46.6%(351명)이었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53.4%(402명)이었으며, 경제수준은 '중'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3.9%(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5.4%(342명)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12	14.9
	Female	641	85.1
Age	Below 19	326	43.3
	Above 20	427	56.7
Religion	Yes	351	46.6
	No	402	53.4
Economic status	High	12	1.6
	Middle	632	83.9
	Low	109	14.5
Physical health status	Best of health	161	21.4
	Good health	342	45.4
	Moderate	209	27.8
	Bad health	41	5.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평균은 3.87 ± 0.62 점으로 그 하위 요인인 내면화 요인은 3.64 ± 0.79 , 인식 요인은 4.20 ± 0.58 이었다. 외모만족도 평균은 5.38 ± 1.97 점이었으며, 신체이미지 평균은 2.88 ± 0.62 , 자아존중감 평균은 2.96 ± 0.39 이었다. 대인관계능력 평균은 3.59 ± 0.45 으로 그 하위 요인인 만족감은 3.43 ± 0.57 , 친근감은 3.60 ± 0.60 , 이해도는 3.60 ± 0.57 의사소통은 3.86 ± 0.68 개방성은 3.54 ± 0.57 이었다.

<Table 2> Mean score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N=753)

Variables	Mean $\pm$ S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3.87 $\pm$ 0.62
Internalization	3.64 $\pm$ 0.79
Awareness	4.20 $\pm$ 0.58
Appearance satisfaction	5.38 $\pm$ 1.97
Body-image	2.88 $\pm$ 0.62
Self-esteem	2.96 $\pm$ 0.39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3.59 $\pm$ 0.45
Satisfaction	3.43 $\pm$ 0.57
Friendliness	3.60 $\pm$ 0.60
Understanding	3.60 $\pm$ 0.57
Communication	3.86 $\pm$ 0.68
Openness	3.54 $\pm$ 0.5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t=4.98$, $p<.001$)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내면화 정도가 더 높았다. 외모만족도는 성별($t=3.94$, $p=.001$), 경제상태($F=16.43$, $p<.001$), 건강상태($F=8.3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학생의 외모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고 경제상태가 ‘상’ 이라고 응답하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외모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신체이미지는 연령($t=-1.92$, $p=.027$), 경제상태($F=14.50$, $p<.001$), 건강상태($F=7.3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20세 이상이 19세 이하보다 신체이미지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경제상태가 ‘상’ 이라고 응답하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신체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자아존중감은 경제상태($F=5.29$, $p=.005$), 건강상태($F=8.0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경제상태가 ‘상’ 이라고 응답하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존중

감 정도가 가장 높았다. 대인관계능력은 성별($t=1.73$, $p=.043$), 경제상태($F=4.01$, $p=.019$), 건강상태($F=14.3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경제상태가 ‘상’ 이라고 응답하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았다.<Table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만족도($r=-.180$, $p<.001$), 신체이미지($r=-.120$, $p=.002$), 자아존중감($r=-.080$, $p=.023$)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모만족도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r=-.180$, $p<.001$)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체이미지($r=.640$, $p<.001$), 자아존중감($r=.530$, $p<.001$), 대인관계능력($r=.380$,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신체이미지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r=-.120$, $p=.002$)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외모만족도($r=.640$, $p<.001$), 자아존중감($r=.510$, $p<.001$), 대인관계능력($r=.470$,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r=-.080$, $p=.023$)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외모만족도($r=.530$, $p<.001$), 신체이미지($r=.510$, $p<.001$), 대인관계능력($r=.560$,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은 외모만족도($r=.380$, $p<.001$), 신체이미지($r=.470$, $p<.001$), 자아존중감($r=.560$,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변인으로 대인관계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인 성별, 경제, 건강상태,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기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독립변수인 명목 변수는 가변수 처리 후 투입하였으며, 최종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Stepwise forward 방법으로 위계적 중다회기분석(Hierarchical 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에 대한 다중 공선성 검사(Multicollinearity)를 점검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다중공선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인 공차한계(Tolerance) 0.10이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는 건강상태,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7.0%이었다. 또한 이들 변수 중 신체이미지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N=7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Mean	SD	t/ F	P	Mean	SD	t/ F	P	Mean	SD	t/ F	P	Mean	SD	t/ F	P	Mean	SD	t/ F	P
Gender	Male	3.31±0.93		-4.98	<.001	4.13±0.68		-1.38	.083	6.05±2.26		3.94	.001	2.94±0.71		1.09	.138	3.02±0.41		1.61	.054
	Female	3.70±0.75				4.22±0.56				5.26±1.90				2.87±0.60				2.95±0.38			
Age	Below 19	3.66±0.78		0.57	.283	4.21±0.58		0.31	.379	5.28±2.03		-1.25	.106	2.83±0.67		-1.92	.027	2.95±0.39		-0.73	.233
	Above 20	3.63±0.79				4.20±0.59				5.46±1.93				2.92±0.57				2.97±0.38			
Religion	Yes	3.62±0.78		1.31	.097	4.21±0.60		-0.11	.460	5.52±1.93		-0.63	.265	2.91±0.62		1.20	.115	3.01±0.39		-0.67	.251
	No	3.45±0.89				4.22±0.57				5.70±1.98				2.85±0.58				3.05±0.40			
Economic status	High ^a	3.63±1.16				4.19±0.77				8.08±1.78				3.63±0.59				3.12±0.47			
	Middle ^b	3.65±0.77		0.37	.692	4.21±0.58		0.33	.716	5.43±1.92		16.43	<.001	2.90±0.60		14.50	<.001	2.98±0.38		5.29	.005
	Low ^c	3.58±0.83				4.16±0.58				4.83±2.04				2.69±0.63				2.86±0.42			
	Best of health ^a	3.70±0.77				4.24±0.61				6.00±2.17				3.03±0.65				3.08±0.41			
Physical health status	Good health ^b	3.63±0.76		0.63	.598	4.17±0.55		0.83	.480	5.34±1.82		8.34	<.001	2.91±0.55		7.36	<.001	2.96±0.35		8.01	<.001
	Moderate ^c	3.65±0.81				4.24±0.60				5.08±1.89				2.75±0.64				2.90±0.41			
	Bad health ^d	3.54±0.93				4.18±0.67				4.08±2.29				2.73±0.80				2.87±0.32			

<Table 4> Correlations among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N=753)

Variable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Self-esteem
	<i>r(p)</i>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180 (.001)			
Body-image	-.120 (.002)	.640 (.001)		
Self-esteem	-.080 (.023)	.530 (.001)	.510 (.001)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050 (.153)	.380 (.001)	.470 (.001)	.560 (.001)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Variable	β	R^2	Adjusted R^2	F	p
Physical health status	.23	.05	.05	41.26	<.001
Physical health status	.15	.24	.24	190.50	<.001
Body-image	.44				
Physical health status	.12	.37	.37	153.37	<.001
Body-image	.24				
Self-esteem	.42				

논 의

최근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곧 능력’이라는 신체와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개인적 가치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Cusumano & Thompson, 1997; Davison & McCabe, 2006).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내면화 요인, 외모만족도,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내면화 요인은 남학생 보다 높았으며, 외모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았다. 타이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Chen, Fox, Haase과 Ku (2010)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보다 높게 수용하고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으며, 또한 남자 청소년들의 내면화요인이 여학생보다 더 낮았고 남학생의 외모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남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여학생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남학생

이 자각하는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고 한 김미혜(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신체이미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9세 이하의 대상자보다 20세 이상의 대상자의 신체이미지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적고, 신체이미지가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한 송경자와 이경숙(200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홍금희(2006)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이상적인 외모기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그 기준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고 하였으나 고 연령층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와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차이로 크게 느끼기 때문에 비교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경제상태가 ‘상’ 이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았다. 이명희(2009)는 청소년의 외모만족도는 학업성적과 사회계층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하류층 보다는 중·상류층에 있는 대상자의 외모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김희숙 등(2009)은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는 용돈이 많을수록 양호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비록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충분한 논의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할 경우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정순과 한경희(2008)는 개인이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한 신체를 자신의 이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진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Mayers와 Crowther (2009)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외모 불만족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낳는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송경자와 이경숙(2009)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수용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왜곡하여 평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은 상호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지현과 최태산(2008)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황윤정(2007)은 성별이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신체 매력성을 높게 평가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왜곡한 사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김미혜(2004)는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으며, Davison과 McCabe (2006)는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청소년들의 동성의 친구관계 뿐 만 아니라 이성의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장선철과 송미현(2004)은 외모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타인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고, 송민선, 안효자와 정영해(2010)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김희수 등(2006)은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정적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신체이미지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고려할 때, 최미라(2007)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자기표현활동을 많이 한 집단일수록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37%로, 이 중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한 전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처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신체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우선 바람직한 신체상을 가꾸기 위한 프로그램(운동프로그램, 식이요법, 메이크업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신감을 갖게 하여 보다 자율적인 모습으로 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황현정, 2006; Coopersmith, 1982). 또한 대인관계능력이 만족감, 친근감, 이해도, 의사소통, 개방성과 같이 다양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 하부요인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재도 고려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감능력이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도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전인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미래의 전문 간호인으로 다양한 질병상태에 있는 환자들과의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에게 현실적인 신체상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긍정적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면의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 연구로 연구대상자는 3개 대학의 753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능력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경제상태, 건강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은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대인관계능력의 약 37.0%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서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신체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도복늬, 김영리, 김태경, 김현미, 김희숙, 박현숙, 서지민, 송예현, 안황란, 오경옥, 이경리, 이경자, 이미련, 이선영, 이지영, 이해경, 전원희, 최진(2009).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정담미디어.
- 김미혜(2004). *대학생의 가족체계,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간의 관계*. 호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남.
- 김현미(2002).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1(4), 518-527.
- 김희숙, 박완주, 하태희(200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29-237.
- 박지현, 최태산(2008). 청소년의 신체이미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117-129.
- 송경자, 이경숙(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저작-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2), 97-110.
- 송민선, 안효자, 정영해(2010).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의료커뮤니케이션*, 5(1), 40-48.
- 이명희(2009).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9(8), 97-109.
- 이정순, 한경희(2008). 여대생의 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2(2), 153-164.
- 이현주(2008). *대학생의 이미지 평가 및 이미지 형성이 진로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천.
- 장선철, 송미현(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115-133.
- 전병제(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9.
- 정길수, 이성은(2002). 집단미술요법이 여대생의 신체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2(5), 743-755.
- 최미라(2007). *청소년의 블로그 이용이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홍금희(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2), 348-357.
- 황성자(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 교육학회지*, 12(2), 205-213.
- 황윤정(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 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 황현정(2006). *대학생의 자기성장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서울신학대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Brewis, A. A., Hruschka, D. J., & Wutich, A. (2011). Vulnerability to fat-stigma in women's everyday relationship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3(4), 491-497.
- Chen, L. J., Fox, K. R., Haase, A. M., & Ku, P. W. (2010). Correlates of body dissatisfaction among taiwanese adolescents.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19(2), 172-179.
- Coopersmith. (1982).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mpany.
-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9-10), 701-721.
- Davison, T. E., & McCabe, M. P. (2006). Adolescent body image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1), 15-30.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M.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Julia, W., & Balzer, R. (1996). *Communications in Nursing : Communicating Assertively*. New York: Mosby.
- Myers, T. A., & Crowther, J. H. (2009). Social comparison as a predictor of body dis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4), 683-698.
- Noller, P., & Callan, V. J. (1990).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nature of their communication with par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9(4), 349-362.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uart, G. W., & Sundeen, S. J. (1983).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2nd ed.). New York:
Mosby.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Kim, Hyo Jeong¹⁾

1)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aeWon University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tudy was designed 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he subjects were 753 nursing students of three nursing colleges. Data were collected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collected from April 1 to May 31, 201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WIN (ver.12.0). **Results:** The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ccording to gender, economic status and physical health status. The scor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showed physical health status, body-image and self-esteem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ese three predictors accounted for 37% of the varia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nclusion:** Physical health status, body-image and self-esteem were the predictors influenc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erefore,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Attitude, Satisfaction, Body-image, Self-esteem, Relation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yo Jeong

Department of nursing, DaeWon University College
316, Daehak Road, Jecheon City Chugbuk Province, 390-702, Korea,
Tel: 82-43-649-3287 E-mail: rellakim@hanmail.net